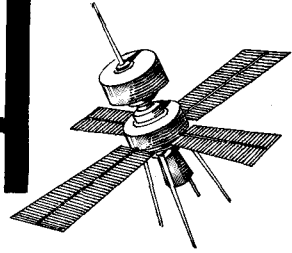


# 이달의

# 인텔리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인천앞 바다가 바다의 전부가 아니다

금년 여름에 닭고기값이 아주 예민하게 변동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닭고기 하나만을 가지고 생산량 소비량으로 수급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과거에도 물가당국이 쇠고기값을 안정시키면 따라서 돼지고기 닭고기값도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수입 쇠고기 방출을 과감하게 하여왔었다.

물론 여기서 안정이란 단어는 주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이 때문에 수입쇠고기는 상당부분이 돼지고기, 닭고기 수요를 잠식한 것이 사실이다.

금년여름에 괴저병(비브리오균감염)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자 닭고기 수요가 증가해서 kg당 1,000원을 하는가 하였더니 쇠고

기로 수요가 몰려 다시 약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육류간 대체가 신속히 되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소나 돼지, 수산물에 대한 정책, 더 나아가서 일반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양계업자들이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농수산부는 지난 7월20일자로 고시 85-40호로 양돈업 허가지침을 고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2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500두이상을 사육하는 양돈업을 허가함에 있어 법 제13조의 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에 필요한 방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의 상한규모) ① 양돈업의 허가는 영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모돈(이하 “모돈”이라 한다) 1,00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모돈 1,000두를 초과하는 두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전년도 수출실적에 상응하는 두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의 수출 돼지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모돈. 이 경우에 수출실적 35kg당 90kg짜리 비육돈 1두로, 비육돈 10두당 모돈 1두로 환산 적용한다.
2. 호당 사육규모 300두이내의 농가와 계열화하여 돼지를 생산하고자 사육하는 모돈. 이 경우에 초과사육이 허가된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자돈은 모두 농가에 공급하여야 한다.

①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사육이 허가된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비육돈이 사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출하된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육부과금을 부과한다.

제3조(사육두수의 감축) 양돈업의 허가 신청 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 규모를 초과하여 모돈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조의 허가상한규모이하로 제한하여 이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두수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제한) ① 양돈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 또는 법인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 규모 규제회피를 위하여 타인 또는 타법인 명의로 신청했거나 지역을 달리 하여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상한규모로 제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이 경우 허가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에서의 사육두수확인, 사육조절, 감축명령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조치하는 바에 의한다.

② 양돈업의 신규허가는 1984년 12월 현재의당해 시도의 전체 모돈수에 대한 허가대상두수의 비율을 초과하여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1984년12월 현재 허가대상이 없는 시도에서는 전체 모돈두수 대비증가두수의 10% 범위내에서 양돈업을 신규로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를 보면 계열화,돈육수출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계열화의 경우에는 아직 계열화란 물고기가 살아가기 어렵도록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 계열화란(integration)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 상대편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더키워보자는 풍토면 문제이다. 부분적으로 자돈을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부분 계열화도 있지만 유통 소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 J축산이 계열화를 시도하려다 부도로 끝나 M 그룹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번 축협이 시도하는 것이 성공되기를 바랄 뿐이다.

수출의 경우도 수출입 기별공고상 돈육의 경우에 축협중앙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출이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금년초까지 돼지 불황기에 돈육 수출애기가 말만 무성하였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중에는 수입국이 우리의 수출제도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다는 것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모돈 500두 이상은 정부가 사육규모 조절에 적극 개입하고 1,000두 이상은 허용치 않음으로써 양돈업의 규모와 돈육수급을 정부가 맡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닭이나 돼지는 생리적 특성 때문에 대개의 경우 과잉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게되므로 정부는 항상 등록제 또는 허가제 등으로 과잉생산을 막



아보는데 정책의 방향을 두게 된다.

그러나 시장기능에 의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하여 축산업중 유일하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양돈산업이 경영권을 정부에 넘겨주고 정부의 보호아래 안주하는 것이, 내년 부터 돼지고기·닭고기등 주요 축산물도 수입을 개방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가격이 안정되고 도시상업자본의 침투는 막아야 되지만 이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일일히 양돈장을 다니며 두수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폭주와 양돈인 서로가 감시 고발함으로써 불신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 된다. 두수를 늘리지 않아도 일정 이익이 보장될 경우, 쿼터제 실시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 개선이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쿼터자체가 이권이 되어 복부인들의 표적이 될수도 있다. 타인명이나별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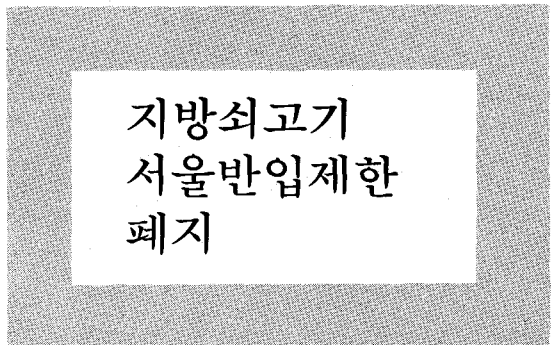
법인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해석상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고 한다.

이제 국민경제는 계속 발전해서 2천년이면 1인당 5,000불의 소득수준에 오르는데 양돈의 규모 억제로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때 유능한 젊은이들은 양돈업에서 떠나 갈 것이다.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보완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시행도중 시정은 소위 우리가 도제법에서 경험하였듯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므로 시행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 예로서 축사의무소독을 들 수 있다. 어느 제도이든 완전한 제도란 있을수 없기 때문에 얻는 이익과 잃는 손실을 비교해야지 얻는 이익쪽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요즈음 신문들을 보면 소값과동을 흔히들 예로 들면서 정책이 소값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정책 입안자나 업계 지도자가 인천앞바다만 보고서 나도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실수이다. 태평양과 대서양도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부가 지방특급 도축장중 11개소에서만 쇠고기 지육의 서울반입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전국의 특급도축장 54개소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1급도축장에서 서울을 비롯하여 시군 및 도간 반출입을 자유롭게 하기위해 육류유통 자율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미 마스크를 통해 널리 보도된바 있다.

이번 조치로 쇠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산지 소값이 상승한 것은 이미 아는바와 같다. 유통통로가 막히면 소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한번 확인한 셈이다.

9월16일부터는 소의 경우와는 반대로 닭고기는 특급도계장이 아니면 시도간 반출이 금지된다. 5월16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문제가 많아 4개월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닭고기의 소비가 감소하는 쪽이 적기를 바라지만 76년부터 계속되어온 닭고기 유통구조의 경직화는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을 3kg 이하로 머물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70년 닭고기는 전체 육류소비량중 27.4%를 점하던것이 지난

육류 소비량(정육) 564,275M/T의 6.5%인 36,678M/T은 닭고기 소비량 117,908톤의 31.1%에 해당되어 지금보다 31%의 닭고기가 더 소비될 수 있는 것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잠식되고 있다. 30%의 닭고기 소비증가는 브로일러 산업을 활기있게 만들 것이며, 30% 병아리 생산량 증가는 부화업체의 침체를 구제하고 도계산업도 발전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유통의 불합리 때문에 닭고기 시장을 빼앗기는 것은 그만하고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는 노력을 할때가 되었다고 본다.

마음의 여유가



무 성급하다는 글을 쓴것을 보았다. 극장에서 애국가가 끝나기도 전에 앉아버리고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긴 시작한다는 예를 들었다. 또 파리에서 이교수가 에레베이터에서 내릴 층이 되어 뒤에서 앞으로 비집고 나오려고 하니 에레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흥해가 갈라지듯 싹 갈라져 놀랐으며, 무슨 급한 사정이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길을 비켜주고 쳐다보기 때문에 에레베이터에서 내린후 별볼일도 없지만 비켜준 사람들이 보고있어 급히 뛰어가야 했다고 한다.

바쁘게 급히 쉬지 않고 달리는 것도 좋지만 각종 규칙은 지키며 달려야 될것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영주도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이상 우리업체에 인적 손실이 없기를 바란다.